

# ‘본분사’ 이탈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

## 前 동화사주지 지성 스님



경북 칠곡 읍내를 지나 극락사로 가는 길. 길 양옆으로 과수원이 이어진다. 연분홍빛 사과꽃이 끝물인 듯 빛을 잃어가고 있다.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비둘기 머슴은 구름들이 물러 온다. 한줄기 비라도 뿌릴 기세다. 극락사를 품어 안고 있는 건경산은 화마가 지나 간 듯 불탄 흔적이 남아있다. 지성 스님께 여쭙었다니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어요”라고 무심하게 한 마디 할 뿐이다. 붉은 화염에 휩싸인 산을 보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을까? 하지만 스님은 이미 평상심으로 돌아와 있다. 대웅전이 무사하고, 요사채가 건재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혼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성 스님의 거처는 소박했고, 경전과 많은 서적들이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동화사에서 행자시절을 보낸 지성 스님은 불교를 알고 출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우연히 들린 진주 응석사에서 의현 스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을 모르고 살면 인간은 우주의 나그네가 되고, 내가 자신을 깨달아 알면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그 말씀에 불교를 마음에 두게 됐다. 결국 이 한 마디가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행자시절 금강선원의 입승스님으로 계시는 지월(指月)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매일 저녁 두세 시

“토굴은 원시인의 험거(穴窟)를 겨우 면했을 정도였어요. 토벽이 그대로 드러난 방에서 가마니 깔고 생활했지. 산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풀밭이라, 풀밭을 살아 가루로 만든 것이 주식이었요. 산나물에 소금이 부식이었어요. 물론 탁발을 해다 먹을 수도 있지만 수행에 방해를 받을 것 같아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보는 것이 그대로 공부라 되던 때였어요.”

산중이라 겨울 내내 많은 눈이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산짐승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어떤 것은 처연(淒然)했고, 어떤 것은 분연(奮然)했는데, 처연한 것은 쫓기는 입장이요, 분연한 것은 쫓는 입장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더라. 서산대사의 선사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한 번은 오대산 줄기인 백석산 토굴에서 홀로 겨

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지성 스님은 토굴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용연사, 송림사, 은혜사 주지 소임을 맡아 여법하게 해내었다. 스님은 2002년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는데, 그때 동화사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거니와 대구불자들의 의식을 크게 일깨운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저의 출가본사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주지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원로들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지만, 삼보를 잘 옹호하라는 등 별로 흡족한 답을 얻지 못했어. 제 나름으로 ‘생각하는 주지, 고뇌하는 주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선원 스님들이 공부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강원을 재개원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강원교육에도 힘을 쏟을 것이며, 교구본사로서 포교에도 열을 쏟아야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지성 스님은 임기 동안 ‘백고좌 법회’ ‘화엄논강’ ‘담선법회’ ‘계율수행법회’를 열어 대중과 여러 언론매체의 관심의 한가운데 있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경내 통일대전에서 100일간 설법을 전파하는 백고좌(百高座)법회였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백고좌법회를 할 만한 여건이 아

### “자신 깨달아 알면 우주의 주인” 한 마디 듣고 출가... 창조 의 길 걸어

### ‘계율수행대법회’ 등으로 신행 새바람 주도 “원력 있으면 뭐든 성공”

간씩 정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우(石友) 노스님으로부터 <조발심자경문>과 <금강경> <육조단경>을 배웠다. 석우 노사로부터 배운 공부는 훗날 정진에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일 년의 행자시절을 끝내고 동화사에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은사인 혜진 스님은 “방일하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니 시간에 투철해야 한다”고 일렀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지성 스님은 불영사에서 삼동결제를 했다. 은사 혜진 스님을 비롯해 금담 스님, 비룡 스님 등 세 분의 스님들이 겨울 내내 장좌불와를 하는 등 초인적인 정진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구도의 길은 개척의 길이며, 창조 의 길이로 발견의 길임을 알았어요. 인간심성을 개척하고 발견하여 참성품을 알고, 참인간을 실현하는 길이 구도의 길임을 불영사 선원에서 절감했지요.”

그 후 깊은 신중의 몇몇 토굴에서 결제 해제가 따르는 수행의 날들을 보냈다. 지성 스님께 토굴이야기를 청했더니 스님은 “세월이 지나 다 있어버렸지”라면서 웃으신다. 그중에서도 심적(深寂) 토굴에서 공부했던 그때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려주었다.

울 한 철을 낳는데, 그곳은 음력 9월인데도 눈이 내리더라. 설한풍에 문 바를 종이 가 없어 쇠뿔을 엮어 문을 삼았고, 눈을 녹여 식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야무야(有也無也)’ 화두를 잡고 치열하게 정진했다. 그런 극심한 토굴 수행이 왜 필요한지 여쭙었다.

“토굴 생활은 외적인 현상계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내적인 갈등과 번뇌를 방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무상한 현실존재의 참모습을 기필코 깨달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심이 힘든 토굴 생활을 견디어내게 한 것 같아요.”

해제를 하고 신작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제천 시내에 내렸더니, 형사가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을 하더라.

“그때 겨울을 통해 내 물골을 보았는데 텅수룩한 머리와 수염, 길고 기운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신발, 내가 봐도 거지 중에 상거지라. 형사가 ‘너 언제 휴전선 넘어왔어? 내가 다 알아. 바르대로 붙어!’ 그러는 데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오년이 넘는 토굴 생활을 마치고 사중(寺中)에서 생활하게 됐으면서 스님은 오래 전 수행이야기를 하

지 안된다면서 말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밀어붙였 습니다. 다행히도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해 성공을 거뒀어요.”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월운 스님, 천운 스님, 법타 스님, 법장 스님 등 백 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 여러 경전을 설법했다. 매일 천 명이상씩 참여했고, 주말에는 이전 명 정도가 참여했다. 가르침에 목말라 있던 불자들에게 ‘백고좌 법회’는 가문 날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 다음 해에는 ‘화엄논강’을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고승 법문이 주제도 없이 법상에 올라가 일방적인 법문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런 식의 법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전을 가지고 시작했단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3회의 법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하고나서 토론자들이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문 시간도 마련했다. 120~130 명의 스님들과 400~500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법회방식도 신도들에게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인기가 있었다.

“이천오백 년 전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서 천이

지성 스님은 1940년 경남 진주 출생. 1958년 동화사 입산. 1959년 동화사에서 혜진 스님을 은사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하안거 성만. 청송 대전사, 영천 은혜사, 옥포 용연사, 송림사, 대구 동화사 주지 역임. 제10·11대 중앙총회의원 역임. 지금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이며, 칠곡 극락사 주석.



##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접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헤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